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신태용 감독과 이승우 등 선수들이 24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회복훈련을 하며 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 중인 대표팀은 지난 23일 치러진 조별리그 A조 2차전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2승으로 일찌감치 16강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 16강 확정 신태용호 “잉글랜드전 쉬어가지 않는다”

U-20 조별리그 아르헨티나 2-1 제압하고 2승...내일 수원서 3차전 “선수 교체·전술 바꾸고 반드시 승리”...이승우·백승호는 결장



일찌감치 16강 티켓을 따낸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4년 만에 만나는 ‘축구 중기’ 잉글랜드를 상대로 역대 첫 조별리그 전승 달성에 도전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잉글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 최종전을 펼친다.

한국은 기니(3-0승)와 아르헨티나(2-1승)를 잇따라 꺾고 2연승(승점 6·골득실+4)을 기록, 1승1무(승점 4·골득실+3)를 기

### ■ U-20 월드컵 A조 순위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실	승점	
1	대한민국	2	0	0	5/1	+4	6
2	잉글랜드	1	1	0	4/1	+3	4
3	기니	0	1	1	1/4	-3	1
4	아르헨티나	0	0	2	1/5	-4	0

록한 잉글랜드를 제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더불어 2승을 기록한 한국은 3위 기니(승점 1·골득실-3)와 승점 차를 5로 벌려 잉글랜드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2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마음 편하게 잉글랜드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펼치게 됐다.

잉글랜드와 U-20 월드컵 무대에서 만난 것은 1993년 호주 대회 조별리그 1차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과는 1-1 무승부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상승세를 앞세워 잉글랜드까지 꺾고 역대 U-20 월드컵 통산 처음으로 조별리그 전승 달성을 노리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잉글랜드 U-18 대표팀(2-0승) 및 U-19 대표팀(2-1승)과 대결해 모두 이겼고, 2015년 FIFA U-17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만나 득점 없이 비긴 바 있다.

16강 대전을 따지면 조 3위 팀과 싸우는 게 나은 만큼 잉글랜드전에서는 승리하는 게 유리하다. 신태용 감독이 세운 조별리

그 목표는 2승1무였다. 목표치의 80% 이상 도달한 만큼 신태용 감독 역시 잉글랜드전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두겠다는 의지다.

잉글랜드전을 바라보는 팬들의 관심은 ‘바르사 듀오’ 백승호(바르셀로나B)-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3경기 연속골 도전에 쏠리지만 신태용 감독은 두 사람에게 휴식을 줄 예정이다.

신태용 감독은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훈련 후 기자들과 만나 “잉글랜드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겠다”면서 백승호와 이승우를 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태용 감독은 “두 선수는 우리가 2연승 할 때 큰 힘을 보탤다”면서 “백승호는

체력을 끌어올리려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렇지만 피로가 누적된 만큼 휴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태용 감독은 잉글랜드전 팀 운용에 대해 “경기에 많이 출전 못 한 선수들을 기용,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지 준비할 것”이라면서 “막연히 경기에 못 뛴 선수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있고, 사고 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겠다. 또 어느 선수가 나가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테이션을 한다 해서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잉글랜드전은 절대 쉬어가는 경기가 아니다”면서 “체력이 있는 선수를 써서 전술을 바꾸고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 “코리안 메시’ 별명 영광...결승 가면 행복할 것”

### U-20 스타 이승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시원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골을 터뜨린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가 자신의 골 세리머니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우는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아르헨티나전에서 전반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40m를 드리블 질주,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승우는 득점 후 관중석 쪽을 향해 달려가, 육상스타 우사인 볼트가 결승선 통과 후 하는 특유의 동작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승우는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

구장에서 열린 훈련 후 기자들과 만나 “팬들이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응원해준 덕에 힘이 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팬에게 세리머니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볼트를 흉내 낸 것인지 묻는 말에 “볼트는 아니고, 요즈음 선수들끼리 즐겨 듣는 외국 노래, 아이 엠 더 원(I'm the One)에 나오는 춤”이라고 말했다.

이승우는 다음 득점 시 세리머니에 대해 “자기 전이나 시험 전에 잠깐씩 생각한다.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다 같이 즐기려 한다”고 웃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후배들을 꺾은 이승우는 ‘코리안 메시’라는 별명에 대해 “영광스럽고

메시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겸손을 보였다.

이 “메시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전세계에 메시는 1명뿐이다. 메시처럼 되려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아르헨티나라는 남미 최고 팀을 상대로 멋진 골을 넣어 기쁘고, 조별리그 통과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세계 각지의 축구 스카우트들이 이번 대회를 눈여겨보는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바르셀로나와 계약 기간이 남았고 바르셀로나에서 행복하다”고 답했다. 그는 조별리그 3승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없던 일인 만큼 뜻깊을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하는 만큼 3승을 하고 16강, 결승까지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개인적 욕심 없다...팀이 먼저다”

### U-20 득점 2위 백승호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경기 모두 골을 기록한 백승호(바르셀로나B)가 ‘선공 후사’를 내세웠다.

백승호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니와의 대회 개막전에서 후반 36분 문전에서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있는 슈팅으로 득점했다. 23일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조영욱(고려대)이 얻어낸 페널티킥 찬스를 놓치지 않고 침착히 골로 연결했다.

백승호는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와 나란히 2골을 기록, 이번 대회 최다 득점(3골)을 기록 중인 콜롬비아의 세르히오 코르도바에 한 골 뒤져있다.

백승호는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훈련 후 기자들과 만나 “득점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것은 내려놓겠다”면서 “개인적 욕심은 별로 없다. 팀이 먼저다”고 말했다.

이 아르헨티나전 득점에 대해 “페널티킥 담당 키커를 맡고 있다. 발걸음, 호흡 등 루틴에 따라 했다”고 소개했다.

백승호는 득점 뒤 손가락으로 네모 모양을 그리는 세리머니를 했는데, 이 동작을 두고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조 추첨 결과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축구는 친한 누나들이 오기로 했는데 티켓을 잘못 사서 못 왔다. 티켓 하나 제대로 못 사느냐는 뜻이었다”고 해

명했던 백승호는 다시 한 번 세리머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대회 전 마라도나가 웃는 것을 보고 욕했다고 인터넷엔 적어 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만 있었지 감히 내가 마라도나를 조롱할 위치가 아니다”며 “김해리, 임선주 등 여자축구 인천 현대제철 소속 선수 8명 정도가 오기로 했는데 기니전 표로 잘못 사서 못 온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회 중간 성적에 대해 “조별리그 (2승 1무) 목표에 다가가 분위기가 좋다”며 “잉글랜드가 확실시 프로 경력이 있다 보니 여유가 남는다. 강하게 압박하는 건 아닌데 한방이 세다. 1위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 집중해서 잉글랜드전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 광주 FC 27일 홈경기 9월 2일로 변경

### 제주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탓



오는 27일 예정됐던 광주 FC의 홈경기 일정이 변경됐다.

광주 FC는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7 K리그 클래

식 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오는 27일에서 9월 2일 오후 7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경기일정 변경은 제주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는 오는 24일과 31일 우라와레즈(일본)를 상대로 16강 1,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광주는 인천전을 시작으로 포항-제주까지 이어진 홈 3연전에 맞춰 홈보 및 마케팅을 추진해 온 만큼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제주가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ACL 16강전에 나서는 만큼 대

적 차원에서 일정 변경 요청을 수락했다.

광주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날 및 홈 3연전에 맞춰 모든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어 변경이 쉽지 않았지만, K리그 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홈 팬들이 경기일정을 작각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경된 경기일정을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이번 경기일정 변경과 월드컵 최종 예선 8차전(카타르전) 등으로 인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오는 6월 17일 대구 스타디움으로 가 대구 FC와 원정경기를 하는 광주는 6월21일에는 수원 삼성과 홈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몸값 오른 김시우, 특급 스타 예우

### PGA 단엔텔루카 인비테이셔널

한국 골프의 새로운 간판스타로 떠오른 김시우가 안마당 골프장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김시우는 26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골프장(파70)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단엔텔루카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한차례 대회를 쉬었던 김시우는

예초 이 대회까지 건너뛰고 특급대회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조점을 맞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시우는 생각보다 몸 컨디션이 빨리 회복된 데다 콜로니얼 골프장이 집에서 자동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출전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김시우가 사는 델러스와 콜로니얼 골프장이 있는 포트워스는 국제공항을 공유하는 등 같은 생활권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 2라운드 조 편성에서 김시우를 특급 스타로 예우했다. 김시우는 마스터스 챔피언 세르히오가



르시아, 그리고 올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우승으로 스타덤에 오른 존 램 등 스페인 출신 스타 2명과 동반 플레이를 치른다.

김시우의 몸값이 수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조 편성이다. 김시우는 가르시아가 마스터스 제패할 때 퍼터를 집게 그림으로 쥐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집게 그림으로 플레이하는 건 아닌데 한방이 세다. 1위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 집중해서 잉글랜드전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